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. 21(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도시재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윤의식, 서기관 조민우 • ☎ (044) 201-4904
	도심재생과	담당자	• 과장 소성환, 사무관 윤성업 • ☎ (044) 201-493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,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.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(서면평가 → 현장실사 → 발표평가)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(30명, 위원장: 국무총리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.
- * 평가위원 구성('17.10월) → 사업계획서 접수(10.23~25) → 서면평가(10.26~11.8) → 현장실사(11.9~17) → 발표평가(11.21~23) → 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사업선정(12.14)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상향식(bottom-up)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, 추진됩니다.
- * 목포시 만호동 일원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('16.4월),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('17.9월) 등을 거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('17.10월)
-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, 지역의 재생자원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.
- 따라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.
-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, 주거환경개선,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

-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항문화 가로조성(34억 원), 주민 어울림 센터(30억 원), 역사공원 조성(26억 원) 등 지역의 역사·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, 주거복지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* 도시재생 사업비: '18년~'22년 간 250억 원 (국비 150억 원, 지방비 100억 원)

-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, 선정,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(해당 시군구)의 주택·토지가격 변동률, 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.

-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, 목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주택·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(목포 사업지)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.11%, 토지가격변동률은 0.22%
(전국)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.31%, 토지가격변동률은 0.43%

- 정부는 목포시 등 전체 뉴딜사업지(167곳)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격 급등,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단속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*, 사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* 목포시 제안을 받아 전남도가 지정 또는 우리부 직권으로 지정 가능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비즈 인터넷판 1.21(월)) >

- ◆ 손해원 부동산 대부분 재정지원 도시재생에 포함...선정 무렵 집중 매입
-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도시재생 시범사업 시기와 겹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윤성엽 사무관(☎ 044-201-4936) 또는
도시재생정책과 조민우 서기관(☎ 044-201-49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